

‘돈 먹는 하마’ 버스 준공영제 손 본다

제주도-도버스운송사업조합 제도개선 협약

재정투명성 확보위해 외부 회계감사 도입 추진 지원금 부당수급·수입금 누락시 준공영제 제외

제주특별자치도는 ‘돈 먹는 하마’ ‘셀프 감사’ 등의 지적을 받아온 버스 준공영제의 재정 투명성과 경영 건전성 확보를 위해 외부 회계감사 제도를 추진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2일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변민수)과 버스 준공영제 제도개선 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회계 등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감사를 외부에 맡길 계획이다. 그동안 운수사업체가 자체적으로 선정해 ‘셀프 감사’ 비난을 받아왔다. 감사인 선정은 제주도지사가 공모를 통해 지정할 방침이다.

재정지원금을 부당수급하거나 운송수입금을 누락할 경우 모두 환수 조치하는 것은 물론, 처분일로부터 1년간 성과이윤 지급을 제외할 방침이다.

또 제주도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 법령 개정으로 준공영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준공영제 중지도 가능해진다.

재정지원금 환수나 감액처분을 3년 이내 3회 이상 받은 운송사업자를 준공영제에서 영구 또는 일정기간을 정해 제외한다. 비상근 임원 인건비는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밖에도 공동수입금 관리 및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던 수입금공동

관리위원회를 ‘준공영제운영위원회’로 바꾸고 구성 방식을 구체화한다. 또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와 교통위원회로 구분됐던 심의기능을 일원화 한다. 표준운송원가 결정방법도 교통위원회가 아닌 준공영제위원회가 맡게 된다.

재정지원방법도 개선한다. 운행실적을 토대로 정산 기준에 따라 산출하는 운송원가 방식과 총운송수입금이 총운송원가보다 적으면 재정을 지원하는 종전 방식을 수정한다. 앞으로는 운송수입금 현황과 표준운송원가를 근거로 신청하고 적절성을 판단한 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조합과의 협의를 진행, 이 같은 제도개선안에 합의했다.

변민수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도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투명성”이라며 “무리하는 한이 있어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받아

들이게 됐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연내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칭) 제정을 위해 이달 중 입법예고를 추진할 방침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은 완성형이 아닌 진행형”이라며 “이번 협약 체결로 버스운수사업자에 대한 책임이 강화됐고 준공영제 운영에 따른 재정지원에 대한 투명성이 한층 담보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어 “향후 준공영제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조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대책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에 준공영제 참여 업체는 극동여객(대표 서석주), 금남여객(대표 조경수), 동진여객(대표 변민수), 삼화여객(대표 강영철), 제주여객(대표 양철웅), 삼영교통(대표 강지운), 동서교통(대표 김법민) 등 7곳이다. 총 보유대수는 733대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카페와 연결된 오수관으로 생활오수가 흘러내리고 있다.

김현석기자

도심 한복판서 10년간 생활오수 무단방류

제주시 노형동 모카페 땅속으로 곧바로 버려 행정은 개선명령 그쳐

제주시 도심의 한 카페가 생활오수를 10년간 무단 방류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제주시가 현장조사에 나섰다.

2일 제주시 노형동의 한 주상복합 건물. 건물주 김모(48)씨는 지난 2017년 10월 이 건물을 매입한 이후 건물 외벽과 1층 지반에 타설된 시멘트 사이가 벌어져 있는 등 지반 침하와 지하실에 물이 주기적으로 차는 현상이 나타나 원인 조사에 나섰다. 김씨는 지난달 23일 건설업자의 조언을 받아 정화조 수리를 위해 1층 주차장 바닥을 들어내던 중 카페와 연결된 오수관을 발견했고 이 오수관에서는 물이 똑똑 떨어지고 있었다. 더욱이 건물 공용수도관이 카페까지 연결된 수도관도 추가로 발견했다.

김씨는 “약 10년 정도 전에 카페가 리모델링된 것으로 보아 최대 10년간 생활오수가 건물 내부로 무단 방류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한 지반 침하가 발생했고, 공용 수도를 끌다가 수도세도 안 내고 영업용으로 사용해왔다”며 제주시에 민원을 넣었다.

이에 제주시는 지난달 24일 현장을 방문, 생활오수가 무단방류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카페를 운영하는 세입자에게 오는 27일까지 개인 배수 시설 개선 명령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현재 문제가 되는 오수관은 임시로 막아뒀으며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개선 명령 조치가 전부”라며 “환경적인 부분은 담당 부서와 논의해서 추가 조치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김씨는 커피숍을 운영하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해당 커피숍은 ‘휴가중’이라는 알림글을 매달고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김현석기자

내일 수능 9월 모의평가

제주도교육청은 4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및 2019학년도 고1,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실시한다.

9월 수능 모의평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도내 30개 고등학교와 5개의 학원 시험장(졸업생)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이번 모의평가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도내 고등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등 모두 7305명이다.

수능 모의평가 문제 및 정답은 매교시 종료 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 및 EBSi 홈페이지(www.ebsi.co.kr)에 공개한다. 표성준기자



폭우를 뚫고... 성산일출봉 관광객들은 관광객들이 폭우속에 탐방에 나서고 있다.

제주동부지역에 시간당 최고 86mm의 가을 장맛비가 쏟아진 2일 서귀포시 성산을 성산일출봉을 찾은 관광객들이 탐방에 나서고 있다. 강희만기자

해경, 해양오염 예방 특별점검

20일까지 도내 어선 대상

제주해양경찰서는 오는 20일까지 지역 내 어선을 대상으로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지역

내 24건의 오염사고 중 어선에 의한 오염사고는 16건(66.7%)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고 원인으로는 해난에 따른 침몰, 기기파손, 부주의에 의한 기름유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경은 위법행위 전력에 있는 어선을 대상으로 연료탱크 주유구, 에어벤트 정장관리 여부 등

해양오염 제발 방지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항내에서 잠수펌프를 이용한 선저폐수 불법배출 등 해양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는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오염사고 대부분이 부주의인 만큼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홍보 및 현장지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해양오염 예방의식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교육청, 정신건강전문의 채용 학생건강증진추진단에 배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에 대한 정신건강 상담과 교육 등을 지원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새롭게 채용한다고 2일 밝혔다.

전국 최초로 지난 2015년부터 학생건강증진추진단에 전문의를 배치 운영하고 있는 제주도교육청은 전문의의 상담에 대한 효과가 높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전문의를 채용해 도내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의 정신건강 증진 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침이다.

이번에 채용하는 전문의는 건강증진추진단에 배치돼 있는 학습심리전문가 및 전문상담교사 등 전문 인력과 협력해 마음건강 상담 및 자문교육 활동, 정서위기학생 지원 사업에 주력하게 된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제주가 최초 운영한 전문의 중심 학생 지원 모델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아동과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경험이나 관심이 있는 전문의들이 확대 배치돼 정신건강 예방-상담-치료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학생의 미래를 생각합니다"

TO THE BASIC FOR THE FUTURE

기본에 충실한 대학, 미래를 준비하는 대학

2020학년도 제주대학교 수시 신입생 모집

- * 접수기간**
2019. 9. 6.(금) 09:00 ~ 9. 10.(화) 18:00
- * 인터넷 접수**
· (주)윌웨어플라이(<http://www.uwayapply.com>)
· 제주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ibsi.jejunu.ac.kr>)
- * 문의**
064)754-2043~5, 8238, 3990~5

제주대학교
JEJU NATIONAL UNIVERSITY